

최근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요인 정리

- 나이지리아 무장반군, 남부 석유 생산시설 공격
 - 무장반군의 남부 석유생산시설에 대한 연이은 공격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납치되고, 일부 석유 생산이 중단됨

- 이슬람, 기독교 주민 간 종교 유혈충돌 발생
 - 이슬람계 거주지인 북부 바우치에서 시작된 '마호메트 만평' 항의 시위가 코란 모독 항의시위로 확대.
 - 교회건물이 불에 타고, 기독교도 등 약 50여명의 사상자 발생
 - 이어 기독교계 거주지인 남부 오니차 지역을 중심으로 반 이슬람 폭력시위 발생. 이슬람 신도 등 80여명의 사망자 발생
 - 나이지리아 정부의 경찰 병력 증파 및 통행금지 연장 등 강력한 치안 강화 조치로 일단 안정을 되찾음

- 오바산조 대통령, 재임(2선) 제한 철폐 개헌 움직임
 - 36개주 주지사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주지사의 임기를 재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 움직임
 - 대통령직 승계를 원하고 있는 아부바카르 부통령 및 야당 세력의 동요 예상

1. 나이지리아 무장반군, 남부 석유생산시설 공격

- 남부 니제르강 삼각주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반군 세력인 '니제르델타 해방운동'의 석유생산 시설 공격 지속.
 - 1. 11일,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Shell의 로얄더치셸 석유생산기지 공격.
 - 4명의 외국인 근로자(미국, 영국, 불가리아, 온두라스 각1명) 납치 및 관련 석유시설의 석유 생산 잠정 중단 초래.
 - 2. 18일, 포르카도스 수출터미널 부근 Shell 생산시설 방화 및 석유 수송항인 와리시 인근 정박 바지선 공격.
 - 외국인 근로자 9명(미국인 3, 이집트 2, 태국 2, 영국 1, 필리핀 1명) 납치 및 나이지리아 일일 원유생산량의 19%에 해당하는 45.5만 배럴의 석유생산 작업 중단 초래.

- 이러한 남부 무장반군의 세력의 석유시설 공격은, 나이지리아 원유의 대부분이 '니제르강삼각주(Niger River Delta)'라 불리는 나이지리아 남부 해안선을 따라 분포된 유전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바, 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석유생산에 따른 혜택이 지역 내에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만성적 불만의 표출임.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범인 무장 강도 사건>

- 지난 1월 28일, 포트하커트시에 있는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범인 본부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강도 20여명이 난입, 약 3만불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 발생.
- 이는 3일전 동일 지역내 이탈리아 석유회사에서 발생한 집단 강도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건으로, 최근 나이지리아에서는 분리주의 무장단체의 석유시설 공격 이후 외국계 회사에 대한 이러한 조직적 강도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2. 이슬람, 기독교 주민 간 종교 유혈충돌 발생

- 2. 18일, 이슬람계 거주지인 북부 바우치에서 시작된 ‘마호메트 만평’ 항의 시위가 코란 모독 항의 시위로 확대.
 - 폭력사태가 21일까지 이어지며, 기독교 교회건물 등 건물 30여 채가 불에 타고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약 50여명의 사상자 발생.
 - 이날 사건은 현지 중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코란을 읽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코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짐. 시위대들은 문제의 교사가 코란을 모독했다고 주장함.

- 이어 기독교계 거주지인 남부 오니차 지역을 중심으로 반 이슬람 폭력시위 발생.
 - 기독교계 청년들은 북부 이슬람교도들의 기독교회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고, 이슬람계 주민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감행, 80여명의 사망자 발생

<나이지리아 종족 및 종교 구성 현황>

- 인구 1억3천만명의 나이지리아에는 250여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 이슬람, 남부 기독교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양분되어 있음
 - Hausa-Fulani 족 : 29%를 차지. 대부분 회교도로 북부지역에 주로 거주
 - Yorba 족 : 21%를 차지. 대부분 기독교로 남서부에 주로 거주
 - Igbo 족 : 18%를 차지. 대부분 기독교로 남동부에 거주

-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의 경찰병력 증파 및 통행금지 연장 등 강력한 치안강화 조치로, 일단 안정을 되찾고 있음

3. 오바산조 대통령, 재임(2선)제한 철폐 개헌 움직임

- 나이지리아 36개주 주지사로 구성된 전국주지사협회는 지난 1월 30일 약 26명의 주지사들이 수도 아부자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과 주지사의 임기를 재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함.
- 15년간의 연이은 군부 쿠데타에 따른 군정을 종식시키고 지난 1999년 민주 선거에 의해 당선된 현 오바산조 대통령은 그간 서부 아프리카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인물임.
 - ※ 오바산조 대통령은 2004년, 이웃 토고에서 독재자 그나싱베 대통령이 급사한 이후, 그의 아들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자, 이를 강력 비난 하고 정치·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선거를 치뤄 당선되도록 한 바 있음.
- 오바산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헌움직임이 본격화 될 경우 대통령직 승계를 원하는 아부바카르 부통령 및 야당세력과의 갈등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유광훈)